



미국 전략 Note

2026. 03. 27

Strategic Insight

일희일비 장세 속에서도 살펴봐야 할 것

- 미국은 트럼프. 트럼프는 이란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 단기적으로 미국도 전쟁 영향 불가피
- 다만 이란 이외 숙제도 조금이라도 진전이 필요

미국-이란 충돌 이후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특징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4주째 이어지며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쟁 발발 직후 MSCI ACWI 지수가 5.8% 하락했다. 선진국 내에서도 S&P500, 나스닥 지수가 3.3%, 4.2% 하락하는 것에 그쳤으나,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 대비 조정 폭이 크지 않았으나, 살펴봐야 하는 점이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와 달리 대표 내수주와 방어주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에도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이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경계는 이어지고 있으나, 금융, 소재 업체들의 조정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 가능성은 열려둬야 하나, 미국은 대내외 숙제 해결이 필요

미국 기업들도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부담은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미국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된 2023년 평균 PER을 적용하고, EPS까지 하향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S&P500 지수의 예상밴드 하단은 5,650pt까지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26/3/20,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 점검 보고서)된다. 미국은 전쟁 장기화 시 정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4~6주로 제시한 전쟁 시한을 크게 넘어서지 않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돌이 지속되며 펀더멘털 훼손 여부 대비 조정 폭이 큰 업체들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전쟁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소해야 하는 숙제들도 다양하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기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증시 속 미국. 피해도 덜 하나, 반등도 제한적 예상

미국은 전쟁이 금일 당장 마무리가 되더라도 대외 불확실성(외교/관세 정책 등)이 해소돼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유럽, 아시아 국가들은 상반기 중에도 정책 모멘텀이 시급하게 반영될 업체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수요 개선, 정책 모멘텀 수혜 업체들의 조정도 크다. 전쟁 종료 시에는 미국 중심의 반발 매수세도 유입되겠으나, 유럽, 아시아 대표 지수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한다

최보원

bochoi@koreainvestment.com

일회일비 속에서도 이란 전쟁 이외에 봐야할 것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시에는 미국 대표 기업들의 펀더멘털 훼손에 따른 조정도 불가피하겠으나, 협상이 조금이라도 논의되거나, 이란 이외의 요인으로 관심이 조금이라도 이동하는 경우도 살펴봐야 한다. S&P500 지수 내에서도 에너지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해당 국면에서 미국 대표 지수 대비 반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대표 경기 민감주와 여행/운송주, 고금리 장기화 피해주인 홈빌더 등<표 6>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경기 민감주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될 수 있는 국가다.

일시적 저가 매수세 유입이 아닌 구조적 반등이 기대되는 업체도 살펴봐야 한다. 해당 업체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업체들도 선별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기와 조기 종료되는 시기,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공급망/국방 강화를 위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4~5월 지표가 발표 시 고금리 부담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주목될 업체 등이다. 대표 산업재, 인프라, 소재, 금융주가 해당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쟁 중에서도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IT가 있다. ETF로는 XLI, PKB, IXG, XLF, XLK 등<표 7>이다.

〈표 1〉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외부, 내부 숙제

외부 숙제	내부 숙제
중국과의 정상회담	고물가 대응 정책
무역/관세	공항 셧다운/ICE 요원 배치/이민 정책
주변국과의 관계	AI 산업 성장 방향성
중동전쟁	AI 기반의 고용/산업 환경 변화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자산 제도화/법제화
각국 국방 강화 필요성 강조	미국 은행 규제 완화
자체 공급망 강화	사모대출 부담

자료: 한국투자증권

미국-이란 충돌 이후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난 특징

선진국>신흥국, 프론티어
미국>유럽, 일본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장기화되며 일회일비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4주 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의 영향을 점검했다. 전쟁 발발 이후 MSCI ACWI 지수는 5.8% 하락했다. 신흥국, 프론티어 지수가 8.6%, 6.6% 하락한 반면 선진국 지수는 5.4% 하락했다. 선진국 지수 내에서도 나스닥, S&P500 지수는 3.3%, 4.2% 하락에 그쳤으나, 유로스톡스50, 닷케이 지수는 8.0%, 8.8% 하락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직후와는 다른 흐름

미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 대비 조정 폭이 제한적인 점은 확인됐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와 다른 점이 있다. S&P500 지수 내에서도 에너지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유사한, 대표 내수소비재/방어주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대표 경기 소비재 업체들도 부진하다.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에도 IT 업종의 조정은 제한적이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x),
단기 반등 컸던 업체 조정
(o)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무조건적으로 방어주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보다 1~2월 반등이 컸던 업체와 자산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반등도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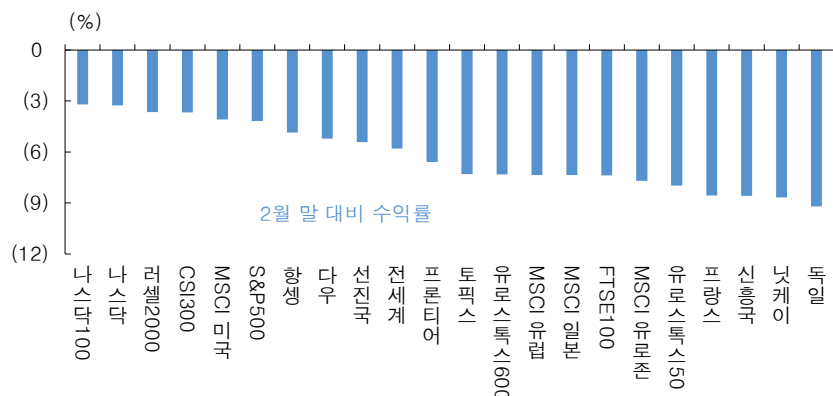
미국은 이란도 중요하나,
대내외 숙제들이 다양

유럽과 기타 국가들의 개입, 혹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보다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실시한 미국은 하반기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상반기에는 이란과 우호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의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4~6주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고물가, 고금리 수혜
업체들의 조정 폭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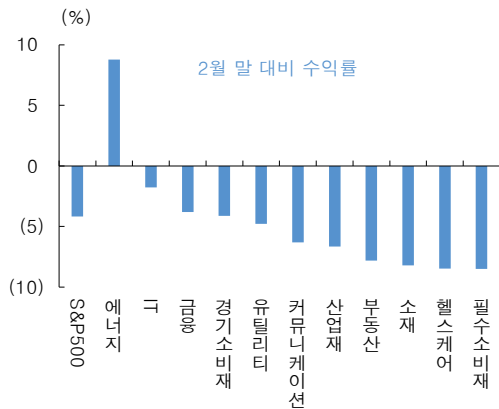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은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던 시기에 상승했던 소재 업체들의 조정도 크고, 대형 방산 업체들의 조정도 크다는 점이다.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확산됐음에도 금융주의 조정도 크다. AI 산업 내 경쟁 심화, 비용 부담 증가 우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월 말 대비 1.6% 하락에 그쳤다. 유럽과 일본 등 IT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나 미국 반도체 기업의 조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림 1] 글로벌 대표 지수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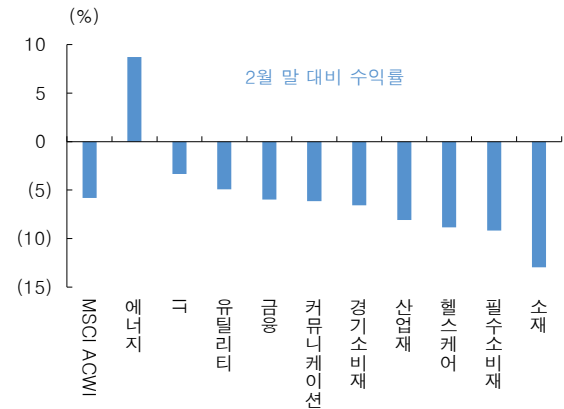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S&P500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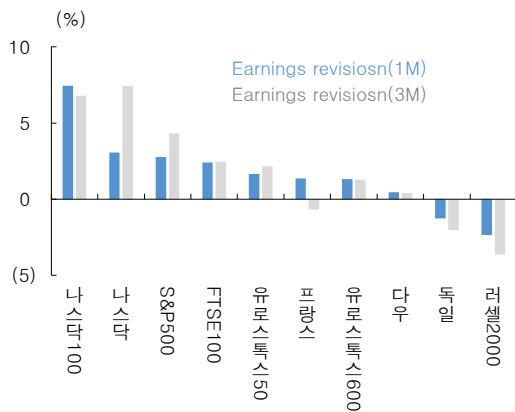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MSCI ACW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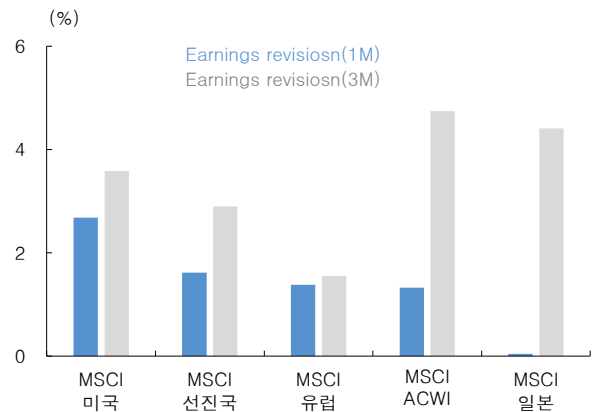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지역별 대표 지수 EPS revi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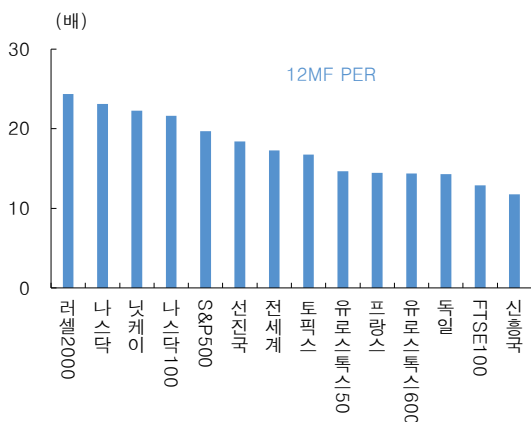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지역별 대표 지수 EPS revisions (MSCI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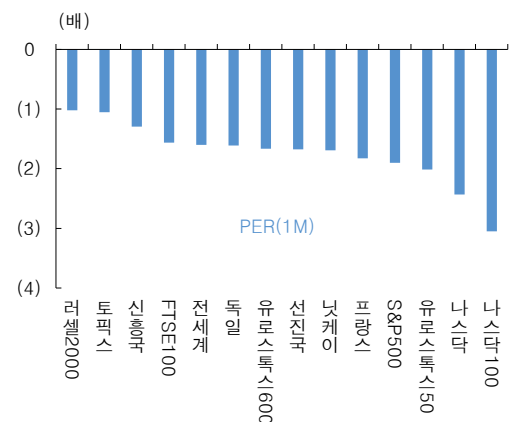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지역별 대표 지수 12MF PER 비교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지역별 대표 지수 12MF PER 변화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실적 불확실성 vs.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실적 불확실성 지속,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

아직 에너지 공급 부족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S&P500, 나스닥 기업의 12MF EPS 전망치는 개선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2MF EPS는 최근 한 달간 오히려 큰 폭으로 상향됐다. S&P500 기업들의 EPS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 발생 이후 미국 대표 지수들은 2월 말 대비 일제히 하락해 S&P500, 나스닥 지수의 12MF PER은 19.7, 23.1배까지 낮아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2MF PER은 19.0배에 불과하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멀티플은 낮아질 수 있다. 미국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된 2023년 평균 PER을 적용하고, EPS까지 하향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S&P500 지수의 예상밴드 하단은 5,650pt까지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26/3/20,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 점검 보고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한으로 제시한 4~6주를 크게 넘어서고, 연말까지도 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지수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전쟁 장기화 시 S&P500 지수 예상 레벨

(단위: pt, %, 배)

종가(3/25)	예상레벨	Downside	적정 PER	금융시장 예상 환경
6,591.9	5,650.0	(14.3)	18.5	- 고유가 기조 이어지며 국제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감안 - 2026년 연간 EPS가 3% 하향 조정되고, 연중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 가능성을 반영 - 미국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된 2023년 평균 PER을 적용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3〉 시나리오별 S&P500 지수 예상 레벨

(단위: pt, %, 배)

종가(3/25)	예상레벨	Up/ downside	적정 PER	금융시장 예상 환경
6,591.9	7,850.0	19.1	23.1	- 미국-이란 충돌 영향 빠르게 회복하고 대형 기업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반영 -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를 감안
	7,285.0	10.5	23.1	- 미국-이란 충돌 영향이 제한적 수준 반영, 대형 기업 펀더멘털 훼손도 제한적인 경우 - 2026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 2025년 PER 상단 수준을 적용
	5,650.0	(14.3)	18.5	-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국제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감안 - 2026년 연간 EPS가 3% 하향 조정되고, 연중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반영 - 미국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된 2023년 평균 PER을 적용
	4,350.0	10.5	15.3	- 고유가, 고물가 기조 장기화로 경기둔화 압력 심화, 대형 기업 펀더멘털 훼손 구간 장기화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최저 수준의 PER 반영

자료: 한국투자증권

트럼프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남아 있는 숙제가 다양

미국-이란 충돌 장기화 가능성도 부각

미국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35%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6개월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나, 25%가 6~12개월, 29%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평가(Pew, 성인 3,524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3월 22일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낮아지며 전쟁 시한 압박도 강화

전쟁이 장기화되며 달라진 점도 있다.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무조건 승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언급하고 있다. 전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기존에 제시했던 전쟁 시한(4~6주)을 지키고자 했음을 시사했다는 보도도 잇달았다.

3분기 내부 숙제 해결에 앞서, 2분기에는 쌓여 있는 외부 숙제 해결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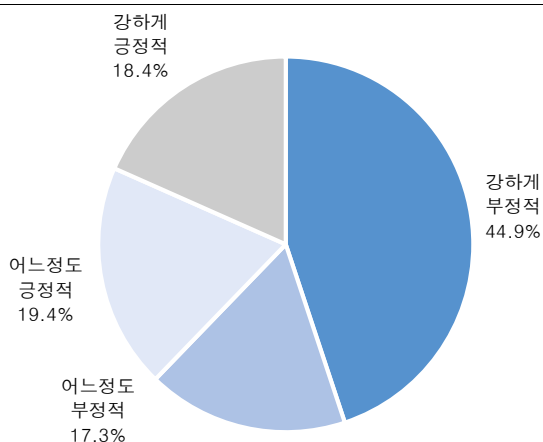
3분기에는 미국 외부 보다 내부 정책(경기 부양, 기업 지원, 규제 완화 등)에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3분기가 되기 전인 2분기에는 이란과의 갈등, 새로운 관세, 중국과의 회담 등의 대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화당/ICE 요원 배치 등의 눈 앞에도 내부적인 숙제를 남아있다. 4~6주, 1~6개월 등의 시한도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전쟁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은 불가피하나, 장기화 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볼 수 없음

미국과 중동의 강국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대응이 불가피하다. 다만 양국의 정책이 장기화되는 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만 관심을 둘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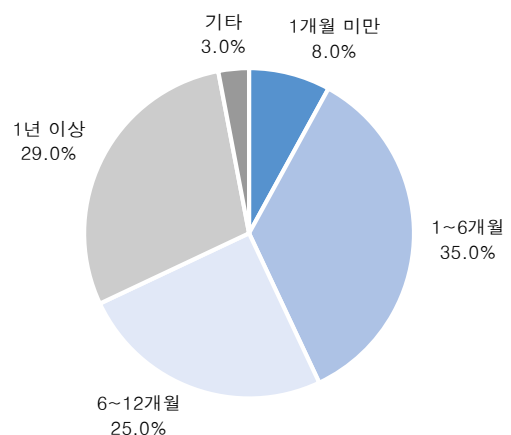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훼손될 가능성은 부각될 수 있다. 그에 따른 일시적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다만 미국은 경기와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경우,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 차원의 대응 정책도 공격적으로 발표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양당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관세, 중국과의 회담 등의 숙제도 진전을 보여야 한다.

[그림 8]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란 분쟁 처리에 대한 평가



주1: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3,524명을 대상으로 진행
 주2: 미국 민주당/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는 부정적인 평가가 90%, 미국의 이란 공격을 88%가 잘못된 결정으로 평가
 주3: 미국 공화당, 공화당 성향 유권자 중 69%는 트럼프 분쟁 처리 방식에 찬성. 71%는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
 자료: Pew, 한국투자증권

[그림 9] 미국-이란 전쟁 예상 기간



주: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3,524명을 대상으로 진행
 자료: Pew, 한국투자증권

〈표 4〉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외부, 내부 숙제

외부 숙제	내부 숙제
중국과의 정상회담 - 에너지 공급, 관세, 핵심광물, 중동 대응 방향성 등의 논의 진행 예상 - 단순히 이란 뿐만 아니라 무역, 제품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수 등락 좌우 예상 - 에너지 수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대형 제조업/IT 기업에 영향 크게 미치는 요인	고물가 대응 정책 - 3월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반영된 매크로 지표 공개될 4~5월에는 물가 상승 압력 대응 위한 조치 언급 필요 - 5월 파월의장 후임 정책 방향성 관심 높아질 것 - 고물가 장기화 경계에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만 부각되기는 힘든 시기
무역/관세 - 이란과의 충돌 중에도 관세 인상 방안 논의 중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결된 이후 무역법 122 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부과. 10%에서 15%로 인상 가능성 논의 - 이란 충돌 장기화 시 단번에 결정되기 힘든 만큼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요인 중 하나될 것 - 우려보다 빠르게 충돌이 마무리되는 시기에도 무역 부담 큰 업체, 경기 민감주 등의 상승분 반납시키는 요인될 것 - 관세에 따른 추가 물가 상승 압력 부담도 확대 예상	공화 섯다운/ICE 요원 배치/이민 정책 - 부분 섯다운 등의 문제 야기하는 이민 정책 갈등 해소 필요 - 강경한 정책의 수정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언급 - 여행, 이동, 경기 영향 미치는 정책 구체화 가능성도 주목 -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 변동 크게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각 - 이민 정책 강화에 따른 건설, 농산물, 외식 산업 성장 둔화 가능성도 주목
주변국과의 관계 - 멕시코, 캐나다 등과도 협상 재가동 필요 - 북미 공급망 강화 위한 논의 지속 예상	AI 산업 성장 방향성 - 미국 대형 성장 기업들과 함께 규제 완화 방향성 논의 지속 - 자체 공급망 강화, 경쟁력 확보 위한 조치 공개 필요 - 협력 강화하겠다는 기대감은 확대 예상 - 규제 강화하는 EU 대응 가능성도 부각 예상
중동전쟁 - 중동전쟁이 마무리 시에도 주변국과의 관계, 원유 공급 방향성 논의 필요 - G7 국가들도 전쟁 대응 논의 지속 - 미국과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악화 가능성 부각 이어질 것 -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재반영 필요성도 논의 필요	AI 기반의 고용/산업 환경 변화 - 고용/업무 환경 변화 대응 위한 조치 발표 필요 - 산업 자동화, AI 수요 확대 지원 위한 인프라 구축 - 임금 상승 필요성, 고용 개편, 기업들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에너지 공급망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 위한 조치 조치 필요 - 미국 내부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필요성 강조 예상 - 기타 국가들도 다양한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 높아질 것	디지털 자산 제도화/법제화 - 달러, 미국 금융 시장 패권 확보 위한 제도화 시도 지속 -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외국 자본 유입시키는 등의 방식 부각
각국 국방 강화 필요성 강조 - 지정학적 리스크가 빈번히 진행됨에 따라 전쟁 조기 종료 시에도 자체 국방 강화 위한 주요국 투자 지속 예상 - 무역/외교 정책 논의 시에도 미국 무기/장비 수출 증가 방향성 언급 - 연이은 전쟁 후 다양한 장비/기술들이 활성화 - 미국 기업들의 수출 증가 위한 조치 부각 예상	미국 은행 규제 완화 -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연방준비제도는 대형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 -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은 기존대비 4.8% 낮아질 전망 -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혁도 진행 - 자본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증가, 자사주 매입 증대 가능성 부각 - 미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 지속 가능성 주목
자체 공급망 강화 - 미국, 이란 이외의 국가에서도 자체 공급망 강화 위한 투자 이어질 것 - AI, 보안 등의 기술 자국화 필요성 등도 다양한 국가에서 언급 가능 -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미국 기업 공급망 강화 위한 시도 불가피	사모대출 부담 - 환매 제한 있다는 점에서 SVB 사태와 금융 위기 대비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부각 - 다만 사모대출 기업들의 부실률 높아지는 점 부담 - 현금흐름 확보하고 경쟁력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자금 조달 힘든 업체들이 나뉘는 국면 예상 - 유동성 이동,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에는 유의 필요 - 사모대출 부실 부담 확대 시 대응 위한 조치도 구체화 필요

자료: 한국투자증권

일회일비 장세 속 준비해둬야 할 것

미국, 이란 충돌 장기화 가능성도 부각되나, 조금이라도 완화 시 미국<유럽, 아시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거나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지연된 내부 정책에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내에서도 고유가 부담이 컸던 국가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상반기 중 정책 모멘텀 강화될 타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상반기 중에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 다양하기 때문

고물가 경계 높이는 지표가 발표될 4월에 대응 정책이 언급될 수 있는 시기다. 유럽, 아시아 국가는 내수 부양, 자국 기업 지원의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미국은 2분기 안에 외부 숙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하반기 중간선거 직전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내부 숙제에 관심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미국-이란 충돌 부담 완화 시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나, 상대적으로 단기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에너지 가격, 경기 둔화/개선 여부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 개선, 대내외 정책 구체화 방향성 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프라, 산업재, 금융주 선호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시기에는 단기 조정이 컸던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 중심의 반발 매수세는 유입될 수 있다. 다만 재진입 시에는 인프라, 산업재, 금융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공급망 강화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도, 미국 은행들의 대출 규제 부담 완화 수혜도 예상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단기 반등이 컸던 만큼 3월 조정도 컸고, 외교 불확실성 지속 시에도 상대적으로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IT까지 주목

일시적으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와 사모 대출 부담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조정도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는 IT 기업도 중장기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 조기 종료, 재진입 고려 시 대응 전략

〈표 5〉 미국-이란 충돌에 따른 수혜 기대 업종/ETF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업종	티커	ETF 명	AUM	일평균 거래대금	총 보수율	분배금 수익률	분배금 지급주기	10 개 기업비중
에너지	미국 에너지	XLE	스테이트 스트리트 에너지 섹터 SPDR ETF	41,960.6	2,997.6	0.1	2.4	분기	75.2
	글로벌 에너지	IXC	아이세어즈 글로벌 에너지 ETF	2,790.9	42.5	0.4	2.7	반기	58.8
	오일+가스	XOP	스테이트 스트리트 SPDR S&P 오일 & 가스 익스플로레이션 & 프로덕션 ETF	3,468.0	757.0	0.4	1.8	분기	27.5
	천연가스 기업	FCG	퍼스트 트러스트 내추럴 가스 ETF	842.7	32.5	0.6	2.0	분기	42.0
	천연가스 선물	UNG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449.2	252.2	0.7	-	-	-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	ICLN	아이세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2,189.2	87.1	0.4	1.5	반기	52.5
	태양광 에너지	TAN	Invesco Solar ETF	1,506.1	74.8	0.7	-	연간	60.0
미드스트림	에너지 인프라	MLPX	글로벌 X MLP &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ETF	3,338.3	25.1	0.5	3.0	분기	65.9
	복합 미드스트림	AMLX	앨러리언 MLP	12,299.5	89.1	0.9	7.4	분기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6〉 미국-이란 충돌 장기화 피해 예상 업종/ETF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업종	티커	ETF 명	AUM	일평균 거래대금	총 보수율	분배금 수익률	분배금 지급주기	10 개 기업비중
여행/운송	글로벌 항공주	JETS	US 글로벌 제트 ETF	684.8	139.5	0.6	0.9	연간	63.1
	글로벌 운송	IYT	아이세어즈 트랜스포테이션 ETF	915.5	53.6	0.4	1.1	분기	73.4
	글로벌 호텔	BEDZ	Advisorshares Hotel ETF	1.7	0.1	1.0	2.4	연간	52.7
경기 불확실성	미국 경기소비재	XLY	스테이트 스트리트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섹터 SPDR	21,998.2	1,314.6	0.1	0.8	분기	69.1
	글로벌 경기 소비재	RXI	아이세어즈글로벌컨슈머디스크레셔너리 ETF	254.8	2.3	0.4	1.7	반기	44.8
	미국 대형 리테일	RTH	뱅크 리테일 ETF	249.5	1.4	0.4	1.0	연간	70.8
	미국 중소형 리테일	XRT	스테이트 스트리트 SPDR S&P 리테일 ETF	524.5	473.2	0.4	0.9	분기	17.5
고금리 부담	미국 홈빌더(대형)	ITB	아이세어즈 U.S. 홈컨스트럭션 ETF	2,342.4	306.1	0.4	1.3	분기	65.4
	미국 홈빌더(중소형)	XHB	스테이트 스트리트 SPDR S&P 홈빌더 ETF	1,428.2	289.6	0.4	0.7	분기	34.9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7〉 재진입 부담 완화 업종/ETF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업종	티커	ETF 명	AUM	일평균 거래대금	총 보수율	분배금 수익률	분배금 지급주기	10 개 기업비중
산업재/방산	미국 산업재	XLI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더스트리얼 섹터 SPDR ETF	28,506.3	2,190.8	0.1	1.3	분기	39.9
	글로벌 방산	SHLD	Global X Defense Tech ETF	8,440.0	162.7	0.5	0.5	반기	59.5
	미국 방산	ITA	아이세어즈 US 에어로스페이스 & 디펜스 ETF	13,781.5	294.0	0.4	0.5	분기	75.2
원자재	미국 소재	IYM	아이세어즈 U.S. 베이직 머티리얼스 ETF	1,206.5	33.8	0.4	1.4	분기	67.5
	금 가격	RING	아이세어즈 MSCI 글로벌 골드 마이너스 ETF	3,044.6	45.2	0.4	0.9	반기	67.1
진입 부담 완화	미국 IT	XLK	스테이트 스트리트 테크놀로지 섹터 SPDR ETF	86,498.5	2,721.8	0.1	0.6	분기	60.9
글로벌 재건/	글로벌 산업재	EXI	아이세어즈 글로벌 인더스트리얼스 ETF	1,196.9	10.2	0.4	1.3	반기	22.4
공급망 강화	글로벌 소재	MXI	아이세어즈 글로벌 머티리얼스 ETF	337.2	4.2	0.4	1.9	반기	39.7
	미국 소재	PKB	인베스코 빌딩 & 컨스트럭션 ETF	408.4	3.9	0.6	0.2	분기	46.3
국채금리	글로벌 금융	IXG	아이세어즈글로벌파이낸셜스 ETF	517.8	5.4	0.4	2.2	반기	30.1
상승/규제완화	미국 금융	XLF	스테이트 스트리트 파이낸셜 섹터 SPDR ETF	48,654.9	2,805.7	0.1	1.6	분기	56.4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공표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